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최원규	학번	
이메일	caecwk@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 GLI	(국가) 미국
기간	1년(2019년 12월 26일~2020년 12월 23일)	[귀국일: 2020년12월23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UCSD GLI에서 1년간의 기억은 정말이지 행복한 순간의 연속이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비록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 즐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이지 미국 그 중에서도 샌디에이고에서의 1년간의 생활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KDI에서 1년간의 학업생활을 마무리하며 앞으로 1년간 미국 어디에서 생활할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샌디에이고를 강력 추천 드립니다. 이미 여러 소문과 인터넷 상의 각종 정보들을 통해 샌디에이고 생활 물가가 조금 높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말 돈을 쓰는 만큼 그에 정확히 비례하여 생활의 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비싼 생활물가를 상쇄하고도 남을 좋은 기억들을 얻어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1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샌디에이고를 택한 것은 정말 잘 한 선택이었다는 더욱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GMP 2년차 미국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소회를 간략히 적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미국 생활 준비과정과 미국에서 겪었던 경험담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준비과정 및 초기 생활적응

미국 생활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할 문제가 미국내 어느 곳에서 생활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후보지역은 4~5곳 정도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최상의 생활환경을 보장받는 지역에서 살겠다는 각오로 샌디에이고를 선택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갈지 결정한 뒤 실제 준비 과정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입학지원 일정에 따라 입학 신청서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UCSD GLI 프로그램의 경우 입학 6개월 전인 8월경부터 신청절차가 시작되는데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로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서를 발송

하면 미국 대학에서 입학 의사를 확인하고 비자 발급 서류를 보내 줍니다. 이에 맞춰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대략 2~3주 지나서 미국 대학에서 DS-2019 양식과 비자 발급 안내서를 보내 줍니다. 서류를 받은 뒤에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비자 발급 면접을 봐야 하는데 혹시나 거절당하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는데 미국대학이 안내한 매뉴얼에 따라 차근차근 절차를 밟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자 인터뷰는 신분이 확실하고 정부가 재정보증을 해주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비자면접을 하러 가면 서류를 확인하고 면접을 기다리는 데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실제 대면면접은 1분밖에 걸리지 않고, 공식질문은 왜 미국을 방문하는지, 무엇을 공부할 계획이냐는 것뿐일 정도로 간략합니다. 짧고 간략하게 대답하면 충분합니다. 각종 비자 수수료 지불, DS-160의 준비 및 제출, 면접 등의 세부절차는 인터넷에 잘 나와 있으며, 많은 의료보험 대형 업체들이 무료로 비자발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비하는 데 부담이 없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와는 별개로 건강보험, 항공권 구매, 국제이주 서비스, 휴대전화 USIM 구매, 주택임대, 자동차 구매 등을 한국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과 다른 점은 미국의 거의 모든 제품 품질은 가격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따라서 예산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건강보험은 미국 대학이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데 미국에서 아프면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한화나 메리츠 종합보험과 같은 국내 보험사가 판매하는 여행자 보험상품에 가입합니다. 어떤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든 미국에서 보험금 청구 및 보상 방법 등을 잘 메모해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권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할 수도 있지만 해당 항공사 온라인 앱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12월 성수기에 출국할 계획이라면 2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으로 가져 갈 짐이 많으면 인터넷으로 국제 이사업체를 검색한 뒤 비교견적을 토대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짐이 많지 않은 경우 현대해상의 드림백 서비스를 이용해 운반하기 어려운 일부 무거운 짐만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 면에서는 우체국 택배 배송비가 저렴할 수 있지만 편의성은 현대해상의 드림백 서비스가 월등합니다. 더욱이 비용 차이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미국 유심은 한국에서도 구매 가능하며, 1개월짜리 패키지를 미리 구입하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직후 휴대폰을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미국에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중소 통신사의 유심(USIM)을 월 30달러 내외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데 대형 통신사 제품과 비교해 통신 품질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어서 조금만 교외로 나가면 통신사 규모에 상관없이 통신 서비스가 잘 안되는 편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일단 전화번호를 받으면 초기 정착시 이 번호로 다양한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전화번호를 바꾸려면 약간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유심칩을 사서 나가더라도 미국입국 이후 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해서 통신요금을 할인 받는 등의 서비스를 염두에 둔다면 1개월짜리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임차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에 살면서 월세를 최대한 줄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세는 아파트 생활여건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지표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세가 높을수록 더 안전하고 좋은 교육여건, 편리한 생활여건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예산만을 따져서 너무 싼 집을 찾다 보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예산에 따라 지역만 선택하면 미국 부동산 앱을 통해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으면 부동산 앱이 아닌 아파트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하면 됩니다. 세부 임대정보를 요청하면 아파트 임대업체가 집 내부 사진 등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보내 줍니다. 현지 한인 커뮤니티에 광고되어 있는 한국인 부동산 중개업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하면 미국에 입국한 뒤 며칠 동안 호텔에 머물며 여러 아파트를 둘러보고 계약을 맺으면 됩니다. 다만 직접 방문해 결정하려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리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살 아파트를 결정하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 신용조사를 통해 보증금 규모를 결정하게 되는데, 통상 신용정보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보증금으로 한 달치 월세를 요구합니다. 한국과 또 다른 점은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해 주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업체가 추천하는 곳은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체로 자동차보험과 같은 업체에 복합상품 형태로 가입하거나 저가보험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집이 결정되면 가구 구입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기존 유학생의 중고 제품을 일괄 양도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일괄 양도가 여의치 않다면 미국에 입국한 뒤 이케아 등 대형 가구점에서 적당한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가구 렌탈 업체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가구를 임차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대학은 특정 업체와 제휴를 맺고 학생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꼼꼼히 찾아보면 원하는 가구를 합리적인 가격에 빌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미국 생활에서 집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자동차 구입의 경우 기존 유학생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카맥스 등 대형 중고차 업체에서 구매하거나 아예 신차를 구매한 후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고차를 사게 된다면 카팩스, 켈리 블루북 등 자동차 가치 추정 사이트를 이용해 사전에 적정가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살 때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 자동차 보험입니다. 게이코와 프로그레시브 등 온라인 직판 보험사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는 결코 싸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보험사를 이용해 견적을 내보고 최종적으로 어떤 보험에 가입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일부 보험사는 한국 무사고 운전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할인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 증빙자료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외 송금 방법과 해외에서 한국 주거은행 업무를 보는 방법입니다. 환전 및 송금 수수료에서 최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외환 주거은행으로 지정하고 외환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또 외국에서 국내 은

행 서비스를 계속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국 전에 주거래 은행 해외 IP 차단 서비스 사전 해제하고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유효기간도 잘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 출국할 계획이라면 자녀 입학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녀가 입학할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준비하면 됩니다. 미국은 주소지에 따라 학교가 배정되기 때문에 미리 입학예정 학교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홈페이지에서 담당자 이메일을 확인하여 사전에 메일을 보내서 문의하면 됩니다. 자녀가 학기 중간에 입학할 경우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T/O가 있는지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학교들은 지역마다 요구서류에 편차가 있지만 입학원서, 예방접종증명서, 한국학교 영문 재학증명서 등을 공통으로 요구합니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집 근처 보건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영문 재학 증명서는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한국 학교에서 발급해 줍니다.

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남은 것은 소소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입국 첫날 공항에서 미국내 목적지까지의 교통수단 선택, 구글 오프라인 지도 다운로드, 국내 사이트의 해외접속 차단 서비스 해제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아 오프라인 지도가 필수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차량용 내비게이션으로 주로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으로 가면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에 오프라인 지도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도착 초기에는 대부분 빨리 정착할 목적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정신 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초기 정착을 수월하게 하려면 미국 은행 계좌 개설과 인터넷 설치가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전기와 가스 서비스에 가입하고 자동차 면허 시험을 볼 준비를 하면 됩니다. 보통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사전에 예약할 수 있지만 원하는 날짜를 예약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약을 하기 보다는 원하는 날짜에 DMV 사무실로 가서 줄을 서서 필기시험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기시험 응시 후 당일 임시면허를 받게 되면 즉시 실기시험을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실기시험은 예약제로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관련된 조언은 온라인에서 수없이 많고 문제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은 한국어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서 기술한 것 외에 여타 사항들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참고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조금만 더 쓴다고 생각하면 아무 것도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소소한 돈을 아끼려고 불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잘 계획하는 것이 더욱 현명합니다. 실제 사소한 생활 비용을 아끼려고 하기보다는 환전 시기만 잘 선택하면 훨씬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입국 준비 과정부터 정착 초기까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한 이유는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한 달만 미국에서 지내다 보면 입국 전 모든 걱정이 허무맹랑한 것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2. 학교 생활

UCSD GLI 과정은 여타 非학위 과정에 비하면 초기 생활 지원 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알아서 모든 준비를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다만 샌디에이고에는 한국인 유학생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데다 초기 정착을 위한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어서 혼자 준비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입학하게 된 이후부터는 GLI 직원들이 학교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잘 안내해 주는 만큼 크게 걱정할 사안이 없습니다. GLI 커리큘럼은 전반적으로 경제학이나 외교관계 관련 수업들을 주로 듣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KDI 생활에 잘 적응하셨다면 GLI 수업을 듣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일년 정도 미국 이곳 저곳을 여행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샌디에이고만큼 살기 좋은 자연 및 생활 환경을 제공하는 곳은 미국 어디에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년 내내 따뜻한 날씨에 습도도 낮아서 한국의 초가을 날씨가 연중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샌디에이고에는 가볼 만한 아름다운 해변과 놀이시설, 그리고 공원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자세히 기술하지는 않겠습니다.

3. 기타

미국 생활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착 과정을 준비하는 시간만큼 미국에서 어떻게 지내실 지도 잘 계획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고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계획하지 않으시면 계획하셨던 만큼의 만족감을 얻기 쉽지 않은 만큼 정말 촘촘하게 계획하시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교학처장 귀하

2020년 10월 19일

신청인 : 최원규 _____ (인)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대현	학번	
이메일	einling@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 San Diego	(국가) 미국
기간	2020.1.3 ~ 12.19	[귀국일: 2020년12월24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24일

신청인 : 김대현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가. 기후 및 지리

- 샌디에고는 겨울 최저 기온이 10도 내외, 여름 최고 기온이 25도 내외로 연중 온화하며, 겨울에 짧은 우기가 나타나는 지중해성 기후에 가까운 특성
 - 햇살이 강렬해 겨울에도 차량 내부에서는 반팔 착용이 가능하며, 10월 중순까지도 바닷물 입수가 가능
- 지리적으로는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의 멕시코 국경 북쪽 20km 지점(북위 32도42분, 서경 117도 9분)에 위치하며, 시간대는 우리나라보다 17시간 느림

나. 생활 관련 사항

- 아파트 렌트의 경우 Realtor들이 중개해주는 아파트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
 - Zillow나 구글맵을 이용, 아파트에 대한 기본 사항 및 사용자 리뷰 참조
- 차량 구매의 경우 SD사람 게시판을 통해 개인간 거래로 구매하였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Carmax를 통해 구매하는 것을 추천
- 가구의 경우 UCSD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월 렌트요금 50% 할인혜택을 주는 CORT Furniture에서 4인 가구용 가구를 렌탈
 - UCSD GLI측에 문의시 안내해주며, 아파트 입주일에 가구가 들어오도록 예약
- 은행은 Bank of America에 계좌 개설
 - BoA는 Chase와 달리, SSN이 없어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
 - Clairemont Mesa Blvd 소재 BoA 지점에는 조선족 출신 상담직원이 근무
- MESA College의 평생교육원에는 배우자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ESL 강좌 운영
 - 주5일, 매일 2시간씩 수업

다. 자녀학교

- 집에서 차량으로 5분정도 떨어진 Standley Middle school로 전입
- 6~8학년 과정으로 이루어진 공립중학교로서 외국인학생들을 위한 ELD 운영
- 한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통상적 서류들만 제출하였고, 부모가 요구하는 학년으로 편입
 - 자녀 1명은 학교측의 이의제기 없이 한국에 비해 1학년 낮춰서 편입
 - 수업은 충실한 편이며, 온라인수업 전환 후에도 1일 5시간씩 각 교과목 담당 교사들이 zoom 앱으로 실시간 수업을 진행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 UCSD GLI에서의 교육은 대체로 양호
- 총 9개 과목 중 GLI 연수생용 특화 과목으로 2과목을 수강하였는데, 각각 미국 정부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리더십에 관한 과목으로서 유용한 과목으로 평가
 - 리더십 과목은 미국과 여타 문화권 간 리더십 차이 및 배경에 집중하면서, 리더십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
- 일반적인 미국 대학 수업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배포된 자료를 읽고 수업시간에 활발히 참여하는 만큼 배울 수 있는 시스템

- 나머지 7개 과목은 GLI 특화강좌가 아닌 일반 대학원생들이 수강하는 GPS 대학원 과목들로서, 미국의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을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 겨울, 봄, 가을 학기 각각 3과목씩 총 9과목 수강
 - 각 과목당 80% 이상 출석해야 비자 유지
 - 2개 과목은 GLI 특화과목으로서
 - 미국정치 관련 수업은 매수업시간마다 수업자료를 미리 읽고 교수님이 제시한 문제에 관한 의견을 짧은 메모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5분 정도의 프리젠테이션과 이것을 정리한 보고서 제출로 시험을 대체
 - 리더십 수업은 교수님의 강의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시험 대신 보고서 제출
 - 나머지 7개 과목은 GPS 대학원 과목들로서 일반 대학원생들과 함께 수강
 - 대부분 과목이 사전에 수업 자료 배포, 교수님의 강의 및 학생들의 질문, 학생들의 그룹 프리젠테이션, 기말 보고서 제출 형태로 진행
 - GLI 연수생들에 대해서는 학위 과정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요청시 프리젠테이션이나 시험, 보고서 일부를 면제해주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학습량이 필요
 - 일부 과목의 경우 zoom 수업의 장점을 활용, 소그룹별 분반 토론도 진행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7665 Palmilla Dr 소재 La Regencia 아파트에 거주
 - 애들 학교를 먼저 정한 후 UCSD GLI측에서 보내준 아파트 자료를 검토하여 몇몇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이메일로 문의
 - 비교적 오래된 4층 목재아파트지만 주기적인 유지보수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렌트비용도 낮지 않은 편
 - 월 렌트비가 3,000달러 정도에 달하나, 12월 말에는 이사 비수기로서 '1개월 렌트비 감면' 등 할인 이벤트를 종종 시행
 - 주변에 Doyle community park, Avalon colony park 및 VONS 등 편의시설 위치
 - UCSD까지 차량으로 10분 소요되며, 유사시 셔틀버스 이용 가능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중서부 일대를 여행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비행기, 열차 등 대중교통 수단은 이용하지 않고 개인차량으로만 이동
 - 숙박은 주로 국립공원 내 숙소를 이용하였으며, 캠핑카(motor home)도 한번 이용
 - 주말에는 샌디에고 해변에서 패들보드, 카약, 바디보드 등 해양레포츠 및 자전거로 시내 투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만족
 - UCSD GLI 수업을 통해 미국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이해도가 제고

- 1년간의 미국생활을 통해 미국 사회의 일반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점과 단점을 파악
- 미국 서부 대자연의 풍광을 즐기며,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 및 에너지 재충전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비자 인터뷰는 재정보증이 확실한 경우 거의 통과의례 수준이며, 인터뷰 2~3일 후 택배로 비자 수령
- 출입국시 현금 보유액을 당국에 정확히 신고하기만 하면 문제 없이 통과
-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LA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아시아나와 연계된 shuttle380 무료 버스로 샌디에고로 이동 가능
- 차량 구매 또는 판매로 인해 단기간 차량 렌탈이 필요한 경우 지역업체인 Renty Car Rental이 저렴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이 주 희	학번	
이메일	Juhi3644@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 GLI	(국가) 미국
기 간	2019.12.13. ~ 2020.12.17.	[귀국일:2020년12월17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MP 2년 학교 선택을 위한 첫 설명회를 통해 UCSD를 알게 되었고 기존 GMP 2년차 보고서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UC San Diego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속기관에서 처음으로 가게 되었기에 기존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던 저에게 기존 귀국보고서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고 돌아온 지금까지도 아파트 렌트시 좀더 면밀히 준비해야 했어야 함을 느끼는 등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이후에 가는 분들이 줄일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귀국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1.주거지역과 아파트 렌트시 주의할 사항

샌디에고 County를 크게 지역으로 나누면 북쪽지역의 카멜밸리, 델마르 지역과 중간의 UCSD, 라호야, UTC 지역, 남쪽의 다운타운 등의 지역으로 크게 나뉘는데 북쪽으로 갈수록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렌트 가격은 전체 크기, 방과 욕실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2 bed(2bath)인 경우 UTC 지역의 괜찮은 아파트라고 평이 있는 경우 2700~2800불 정도 였습니다. 아파트의 리모델링 여부, 위치 등에 따라 가격이 200불씩도 차이가 나고 연말 특정기간에 공실이 있을 경우 한달치 렌트비 할인 등 여러 변수가 있기에 출국전 이메일을 통해 Leasing Office에 직접 문의를 하여 가격을 문의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답장이 안오거나 회신이 느려서 시간을 두고 준비 필요) 입국하여 호텔에 거주하면서 알아두었던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을 하는 유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착도우미의 도움을 받는 경우 대개 카멜밸리 지역의 새롭게 지어진 아파트를 추천해주는 데 개인적으로 정착도우미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정착도우미가 추천해주는 아파트와 더불어 주거지역으로 괜찮다고 평이 있는 지역을 비교하여 최종 본인의 수요에 맞는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거지역 선택시 자녀가 등교할 학교를 고려하여 대개 선택하게 되는데 중고등학교 학생이 있는 경우 카멜밸리 지역을 더 많이 선호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학생이거나 없는 경우 등은 UTC 지역을 선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특히 가

격에 선호도가 반영되어 있기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더 200~300불 더 비용을 지불할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같은 샌디에고라도 지역별로 학교구가 달라 (미국은 학교구별로 교육위원회를 별도 운영) 교육 진행방식이 다른데 코로나 상황에서 카벨밸리 지역은 등교수업과 원격교육을 병행하였고, UTC 지역은 원격교육으로만 진행하였습니다. 렌트가격도 고려해야 하지만 주거지역을 선택할 때에는 해당 교육구의 교육방식도 사전에 알아보아야 할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는 UTC 지역의 위치도 좋고 시설도 괜찮은 아파트(Avalon)를 Take over 방식으로 렌트하여 초기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원래 괜찮은 아파트일수록 Take over를 안 해 주는데 이례적으로 받았음), 디파짓도 Take over 하여 개인간 지불하여 주었는데(KDI 동문) 본인이 직접 1년 사용 후 퇴실시 leasing office에서 사소한 것 까지도(석회질 물에 의한 세면대 하얀색 부식 등 자연적 발생되는 것도 세면대 전면교체 등) 과다 청구하여 디파짓(2600불)을 다 못 돌려받을 뿐만 아니라 더 과다 청구를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Take over 받거나 새로 입주하게 되는 등 아파트를 렌트할 시에 받을 당시 사진을 면밀히 찍어 두고 퇴실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Leasing Office에 사전 물어보아 나중에 과다 청구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초기정착

초기정착에는 여러가지가 필요한데 핸드폰, 공항에서 이동, 자동차보험, 주택보험(아파트 렌트시 필요), 운전면허 시험, 차량등록, 계좌개설, 전기가스 개설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내용은 코로나 발생이전 내용이라 코로나 이후 온라인 등록으로 변화된 것도 있어 참고만 하고 다시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핸드폰) 한국에서 미국 유심(비자 면접시 미국대사관 앞에서 광고함)을 사가지고 가면 공항에서 곧장 사용 가능하나 가격이 조금 더 비쌌. 공항에 도착해서 직접 유심을 사서 쓰거나 한국에서 산 유심을 가지고 가서 1~2주 사용하고 현지 통신사를 알아보고 가입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본인은 1개의 통신사 유심을 한국에서 유심을 사가지고 가서 초기에 사용하였음. 현지에서 통신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동기들 중에는 시온마트 내 상가에서 저렴한 통신사 가입한 경우도 있었고 본인은 AT&T prepaid 데이터 무제한 45불(자동결제신청시)을 사용하였음. 도착하자마자 아파트 렌트와 SDGE(전기) 설치, 계좌개설 시에 핸드폰 번호를 사용하여야 하기에 초기 가자마자 사용할 한국에서 가지고 간 유심은 유용하였음. AT&T의 경우 가입 후 문의사항이 생기는 경우 한국어 서비스 해주는 번호는 80-300-6657 이었음. 이동 중 Google map을 많이 사용하였기에 저렴하지 않았지만 데이터 무제한으로 사용한 것은 상당히 편했음.

(공항에서 이동) 대한항공이용시 LA공항에서 샌디에고로 2시간 정도 이동을 하여야 하는데 한인택시를 많이 이용함(택시 가격에 톨비, 주차비 등 포함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대개 250~280달러 내외임), 허가없이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TCP 택시 허가번호, 영업용 보상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함(샌디에고 사람

(SDsaram) 홈페이지 광고 업체 중 선택하여 카톡으로 예약을 하였음.

(자동차보험) 샌디에고 사람에서 보험업체에 연락하여 견적 받을 수 있으나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었음. 한국보다 보험료 2배 이상 되는 것 같음. 6개월 기준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가입시 가격이 더 비싸고 3개월 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취득후 일부 환불 가능하다고 하나 부부모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야 가능함. 자차보험금액, Deductible, 보상정도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나므로 U-tube 등에 나와 있는 미국보험 가입방법 등 설명을 시청한 후 참조하면 보험가입시 도움이 됨. 일부 동기들과 같이 단체(가족)보험 가입시 추가 할인되는 경우도 있었음. 필요서류: 한국운전면허증 번호, 운전할 차량의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차대번호), 국제운전면허증(경찰서), 거주지 주소 등

(주택보험(Renters Insurance))은 자동차보험회사와 같이 가입하거나 또는 lemonade라는 온라인 보험업체에서 가입 가능 (렌트계약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 함). 온라인 보험업체가 저렴한 편임

(전기 가스 설치) 입주시 전기가스 설치회사로부터 번호를 부여 받아야지 입주가 가능함. SDGE <http://www.sdge.com> 440 Beech St, San Diego, CA 92101

Downtown San Diego Branch Office
M-F 9 a.m.--5 p.m. (Closed for lunch from 11 a.m. – 12 p.m.)
Inside the California Coast Credit Union

SDGE 한국어 서비스: 1-800-411-7343 있었음. 필요서류: 여권, 국제면허증(본인 사진 있는 ID 2개), 렌트계약서, 핸드폰 번호 등으로 전기미터번호를 받는 것임. SSN번호가 없으면 온라인 가입은 불가능함. 전기가스 설치할 때 홈페이지 온라인 가입도 원한다고 하면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니 번호 받을 때 홈페이지 가입하게 하는 것이 좋음. 차량 가져가면 건물 뒤쪽에 15분 정도 무료 주차가능함. 길가에 parking도 가능. parking machine에 쿼터 삽입(쿼터 1개에 17분)

영업시간은 월~금 오전9시~오후5시(오후5시 정각에 문 닫으니 시간안에 도착할 것임. 토요일 운영, 시간 등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필요함. 신분증(여권, 국제운전면허증), 거주지 증명 등 보여주면 창구직원이 종이에 SDG&E Transaction ID Number를 적어줌(샘플 ; 0601-EFL122613), 핸드폰 번호도 물어보니 사전에 핸드폰 가입필요, Deposit(동일 주소지의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개인마다 다름)이 있으며 우편으로 청구서 보내주겠다고 함(10일 후 청구서 옴). 전기회사직원이 집 방문하는 절차는 없음.

(계좌개설) 여권, Ds-2019, 비자 서류, 미국 거주 증명서 (자동차 보험계약서, 임대 계약서 실물 등 두 가지 이상이라고 알고 있었으나 렌트계약서만으로 되었음), 최소 보증금 (필수는 아님 주로 10-30\$ 현금) 등. 영업시간은 9시~6시, 토요일도 은행업무를 하고 있으나 일찍 끝나니 사전 확인 필요함. 대개 Chase와 BOA 중 선택하여 개설 가능함. 샌디에고 내 BOA 지점 중에 한국말 가능한 직원이 있어 해당 직원에게 가입한 동기들이 있었음. 준비서류는 여권, 렌트계약서 실물, Ds-2019, 자동차 보험계약서 였음. 본인은 Chase 개설하였음. Chase Premier Plus Checking(Monthly service fee (\$25), Check & saving 합쳐서 잔고

\$1,500 이상이면 service fee 면제, Check 3개 무료 발행, 송금으로 입금시 15불씩 차감되었음

(인터넷 설치) 대개 AT&T와 스펙트럼 두가지 종류 회사 중 선택에서 가입하고 있음. 스펙트럼은 속도가 200mb로 좀 느리다고 하나 자가설치로 빨리 설치가능하고 보증금 필요없고 계약기간 없고 해약금 없음. 한국어로 설치 요청 가능하였음. (855-500-1004), AT&T는 300mb 이상 된다고 하고 전용으로 되는 아파트 등이 있다고 함. 개인적으로 스펙트럼 설치했으며 스마트 TV 인터넷 사용하는데 사용할 만 했음. 한국과 같은 빠르기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음

(운전면허 필기시험) 사전 예약(dmv.ca.gov)이 밀려있는 경우가 많고 당일 접수해도 시험볼수 있음 (홈페이지에 예상 시간 알려줌). 필요서류는 Ds-2019, 비자, 거주지 증명 2개(렌트계약서 실물, 보험계약서 실물, SD&E 가입증명서, I-94 등임. 순서는 입구 안내직원에게 DRIVER'S LICENCE WRITTEN TEST하러 왔다고 하면, Application form 받아서 기재(이름, 주소, 생일, 키, 몸무게, 면허종류는 CLASS C에 체크)하고 기재후 안내직원에게 제출하면 대기번호(샘플 F006, A005)를 나눠줌. 대기번호 부르면 해당 Window로 가서 간단한 시력검사하고 한글시험지 요청하고 접수비용(\$32) 현금지불 하였음. CAMERA라고 써진곳에서 상반신 사진촬영하고 Window 32번(클레먼트DMV)에 가서 컴퓨터로 시험 실시(6개이상 틀리면 현장에서 공부하고 바로 재시험 볼수 있음. 합격하면 Temporary Driver Licence 발급(60일간 유효)함. 필기시험은 인터넷에 나오는 예상문제 중 일부는 똑같이 출제되나, 예상문제에 없는 문제도 나오는데 무척 헛갈림(캘리포니아 주 운전자 안내서(한글본 있음) 일독 하면 도움이 되긴 하나 어느 정도 공부하면 통과할 수 있음.

(자동차 등록) 차량 이전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핑크슬립, Smog check certificate, 보험가입 증서, 거주지 증명서임. 인수후 10일 이내 등록해야 함, 순서는 접수직원에게 Transfer of Title 하러 왔다고 말하고 접수직원이 서류 주면 CERTIFICATE OF TITLE(일명 핑크슬립) 맨하단 매도자 옆에 매수자가 DATE, SIGNATURE, PRINTED NAME 작성, 뒷면에는 매수자 정보를 작성(주소, 매매금액 등) 하라고 안내해줌. 핑크슬립 작성 방법은 <http://blog.daum.net/grandmotor/418>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음. 차량거래가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 이전비용은 매매대금의 7.95% + 등록세 \$180(불확실?) 제출하면 새로운 REGISTRATION CARD(유효기간 2014.1.8~2015.1.8) 및 차량 뒷면 PLATE에 붙일 새 스티커 발급해줌, 스티커 유효기간 지나면 경찰이 단속함. BILL OF SALE은 작성 불필요(물어보지도 않음). 새 Transfer of Title은 우편으로 발송해줌

(운전면허 실기시험) 필기시험 후 실기시험 장소는 원하는 곳으로 정할 수 있음. 시내에 있을수록 따기 어려울 수 있음. 외곽에 있는 DMV에서 쉽게 합격하는 경향이 있음. 클레먼트 실기시험 합격이 어려운 편임

(전학신청 필요서류)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렌트계약서, DS-2019, 여권, 예방접종 영문증명서, 영문 재학증명서, (건강검진, 치과 소견: 동일초등학교 경우 요구하지 않았음). 겨울 Break가 12월 23일 전후이므로 미리 전학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break 전에 가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학일에 가야함

(주요 쇼핑할 곳)

- RalFs/VONS 등: 식료품, 잡화 구입, 회원카드 만들면 할인해줌
- Japan Daiso: 저렴한 생활용품 구입(욕실 커튼 등 다양함)
- Whole Food Market: 유기농 식품 및 재료 판매(아마존 프라임 가입하면 할인)
- ZION MARKET, Hmart: 대표적 한인마트임. 시온마트는 7655 Clairemont Mesa Blvd에 소재하고 있으며 안에 KOREAN GIFT STORE, 음식점, 정관장, 시온택배 등의 상가가 있음
- Target: 5680 Balboa Ave 전화 (858)309-6564
- Costco Morena: 4605 Morena Blvd, San Diego, CA(차량 10분 거리)
- IKEA: 2149 Fenton Pkwy, San Diego, CA(차량 20분 소요)
- Walmart(한인타운 근처): 4840 SHAWLINE ST CA 92111
- Golfmart: 1231 Camino Del Rio South, San Diego(차량 20분 소요), 골프클럽 등 용품 구입
- Las Americas Premium Outlet: 4211 Camino De La Plaza San Diego, CA 92173(805 south 멕시코방향 35분 소요) 대형 쇼핑몰
- 칼스베드 프리미엄 아울렛 : 근처에 레고랜드가 있음
- 식료품 점에서 Debit card 결제시 "Do you want cash back?" 물어보는데 ATM에서 돈 인출하는 것처럼 현금을 뽑아서 주는 것으로 보통 No 선택함

3.여행 등 주로 가볼만 한 곳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근처에는 좋은 자연경관과 놀이시설 등이 있어 가족과 같이 가볼만 한 곳이 많음.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생활정보를 일괄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샌디에고 한인회에서 책으로 발간하는 샌디에고 가이드임. 샌디에고 한인회(우리성모병원) 또는 시온마트 옆 가판대에서 얻을 수 있음. 샌디에고 인근과 캘리포니아 등에 대한 자세한 여행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음.

(샌디에고 인근) 라호야 Cove(카약 체험도 가능함), Sunset Cliff, Blacks Beach, Torrey Pines Gilderport, Ellen Browning Scripps Memorial Pier, Westfield UTC, 벨몬트 공원, Mission Bay 공원, Seaworld, 리버티 스테이션 NTC 공원, 카브릴로 국가기념물(국립공원 패스 필요: 초등학교 3학년 자녀의 경우 무료 패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출력해서 가면 모든 국립공원이 연간 무료임), Potato Chip Rock, Spruce Street Suspension Bridge, USS Midway Museum, Tuna Harbor Docks Market(토요일 오전에 열고 인근 산책하기 좋음), 코로나도 섬, City of Coronado city Hall, Lake Murray Rest Area, 실버 스트랜드 State Beach, Mom's Pie House(Jullian), Otay Lake, Anza-Borrego, 칼즈베드 레고랜드 등임

4. UCSD 수업

코로나로 인하여 중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이 대체 됨에 따라 직접 수업을 듣는 경험을 못 해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았던 수업은 토마스 교수님의 전략적 관리 등의 수업 이었습니다. 미국 대학원생의 수업 진행 속도 등을 따라가기 어

려웠지만 GLI 외국 학생들을 이해해 주시는 정도의 과제와 다양성을 중시하시면
서 명쾌하게 수업을 하여 주셔서 적은 부담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필수수업인 US Government 수업에서 관심있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을 비교하고
발표하게 되어 한국과 미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 관
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고서 작성과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필수수업인 Leadership 관련 수업에
서 아시아와 미국의 리더십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를 배움으
로써 한국에 맞는 리더십이 무엇이며 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필수과목의 경우 매년 유사한 경우로 진행되기에 자신이 관심을 가
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정책을 비교할 과제와 리더십 비교에 대하여 준비한다
면 수업에 보다 편하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GLI 학생은 과목당 학생수를 제안하고 있고 수강신청전 자세한 실라부스
를 제공하지 않아 과목선택이 쉽지 않고 수강신청을 전산으로 하지 않고 이메일
등으로 개인적으로 제출한 것을 취합하는 것으로 하고 변경시에도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때 개선을 요구
하긴 했으나 GLI의 편의대로 하는 것이라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입
니다.

5. 의료시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병에 걸렸을 때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으로는
UCSD 학교와 연계된 병원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검사장소와 병원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대개 간단한 치료 등은 우리성모병원
을 이용하였습니다. 보다 안전한 생활을 생각한다면 학교에서 추천하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사히 한국에 귀국한 것을 감
사하고 있습니다.

Walk in 진료소 (라호야 지역): 스크립스 Health express

토리파인스(10666 N Torrey Pines Rd), 858-554-7439

UCSD 클리닉 코로나 비상 연락처(888-261-8431)

우리성모병원 (858-277-7111), 중앙병원(858-571-1004)

샌디에고 카운티 공중보건국 유행병담당(619-692-8499)

가까운 코로나 검사소(HCNC SAN DIEGO, Herald Christian Health Center):

findahealthcenter.hrsa.gov 에서 검색 가능

4282 Genesee Ave Ste 102, 858-598-6789

응급실 있는 종합병원

Scripps memorial hospital la jolla (campaigns.scripps.org)

858-626-4123, 9888 Genesee Ave, La jolla

Sharp memorial hospital

858-939-3400, 7901 Frost St

6. 총평

렌트비용이 비싼 편이나 날씨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그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으

로 생각합니다. 한인회에서 제공하는 샌디에고 가이드를 구하여 조기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 월 15일

신청인: 이 주 희 (인)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정상옥	학번	
이메일	otymom@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UCSD / GLI	(국가) 미국
기간	2020.1.6. ~ 2020.12.19.	[귀국일:2020년12월19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 월 일

신청인 : 정상옥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기후,지리적 위치,생활관련 사항,자녀학교 등)

San Diego는 미국 California State의 남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북쪽에 위치한 LA로부터는 자동차로 2시간 거리에 그리고 남쪽으로 30km에 위치한 Mexico로부터는 30분 거리에 있다.

기후는 서태평양에 접하고 따뜻한 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기온은 높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한 해양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연강우량이 많지 않아 건조한 사막성 기후를 갖고 있으나 1월에는 비가 비교적 자주 내려 우기로 분류되기도 한다. 연평균 기온은 한국과 비교해 약 5-7°C 정도 높아 온화하고, 특히 공해원이 거의 없는 관계로 공기가 깨끗해 생활하기에 매우 쾌적하다.

San Diego는 온화한 날씨, 깨끗한 공기의 질, 쾌적한 생활환경, 낮은 범죄율 등으로 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따라서 여유가 있는 퇴직자 등에게 인기가 높은 관계로 생활물가가 높기로 유명하다. 특히 아파트임대료는 대도시와 비슷하여 1Room, 1Bath에 월 2,000달러 정도로 매우 높아 많은 유학생들이 힘들어 하기도 한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UCSD(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의 GLI(Global Leadership Institute)는 Non-degree 코스로 미국인 및 다양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수업을 같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매 학기마다 KDIS 학생들이 주가 되었고 약간 명의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같이 수업을 하였고, 한국 학생들 중에도 다른 경로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방송관계자 및 일반 사기업,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KDIS 학생들 보다는 그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한 덕분에 공무원외의 다른 분야의 베테랑들을 통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다른 분야의 한국인을 만나기에도 외국 친구들을 만나기에도 적합한 과정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매 학기마다 ESL 두 과목을 포함한 3~4과목의 수업을 들었는데, ESL수업은 기초 영작문과 문법, 회화 등을 배웠으며 ESL외의 과목은 UCSD의 일반 대학원생들과 같이 GPS 과목을 들었다. ESL 수업은 일반 영어학원에서 수강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GPS는 영어는 물론 강의 내용도 쉽지 않았다. 다만, 교수님들께서 GLI과정 학생들을 이해하시고 편의를 봐주셔서 일반 대학원생들보다는 훨씬 수월하기는 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Semester)는 Winter, Spring, Summer, Fall 4학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Summer학기는 ESL코스로 주로 영작문, 영어회화 등 일반 영어과목을 수강한다.

매 학기 ESL과정 2과목과 일반과정 2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출석율은 최소한 80%이상 되어야 한다. 수강신청은 KDI에서와 달리 내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하면 대부분 수강을 할 수 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일반 석사과정 학생은 기숙사 입실이 가능하나, Non degree 과정 학생은 기숙사 입실 자격이 주어지고 않아 캠퍼스 밖의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해야 한다. 대부분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생활하게 되나 San Diego 지역의 임차료는 타 도시에 비해 비싼 편이다. 보통 1 bed, 1 bath(우리나라 15~18평 아파트 정도)가 2,000불 정도이고, 2 beds 2 baths는 2,000불 이상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바닥은 카페트가 깔려있어 보기에 좋고 소음방지에 좋으나 먼지가 많고 세균번식 가능성이 높아 관리하기가 불편하다. 나는 전년도 KDIS학생의 아파트를 Takeover 하여 생활하였는데 전자레인지 냉장고 오븐 등 전자제품은 빌트인이었고 생활용품도 거의 갖추어져 있어서 생활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한국과 달리 방 천장에 전등이 없어 별도의 스탠드로 생활하였으며, 쓰레기 및 음식물 분리수거는 실시하지 않는다. 층별이나 위치별로 아파트 임대료의 차이가 있으며, 임대료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check로 지불하거나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다. 임대료는 매달 1~5일까지는 지불해야 하며 하루라도 연체되면 50불정도 연체료를 부과하므로 임대료 지불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San Diego에는 Zion Market이나 H Mart 등 대형 한인 마트가 있어 한국음식 재료는 손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음식에 대한 어려움은 크게 없었다. 특히 과일, 채소 및 고기 식재료가 싸서 직접 요리를 해먹었다. 외식은 기본 음식값외에 팁을 15~20% 지불해야하므로 꽤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샌디에고는 도시가 평면적으로 넓게 퍼져 있고, 태평양에 접해 있으면서 조경이 잘 되어있는 등 주변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고 공기가 맑아 야외 활동에 아주 적합한 도시이다. 멀리 이동을 하지 않더라도 주변에 공원이나 트레일 할 곳이 많아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고, 특히 내년 US OPEN이 열리는 토리파인즈 골프장을 비롯한 100여개가 넘는 훌륭한 시설의 골프장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다.

또 UCSD에서 제공하는 EIA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CONVERSATION LEADER와의 교류를 통해 영어 회화 능력 배양은 물론이거니와 평범한 미국인의 생활을 엿볼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추억 및 훌륭한 친구를 가질수 있었다.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UCSD의 GLI은 과정은 Non Degree Course로 비록 학위는 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인 경험을 통하여 미국생활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Degree과정에 비해 보다 많은 자유시간을 활용해 많은 외국인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상대방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 주말이나 방학 때 미국 각지의 주요지역을 여행하면서 보다 미국의 실제적인 상황을 체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시간이 된다면 여행을 통해 가급적 미국의 곳곳을 여행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7.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누군가의 말처럼 미국은 신의 편애를 받은 곳임에 틀림없다. 훌륭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은 그들의 삶을 풍요롭고 여유있게 만든다. 일상에 지치고 경쟁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생각한다면 부럽지않을 수 없는 환경임에는 틀림없다.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빵보다 자유를 외치는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면서도 한편으로 이해가 되었던 것은 일년의 미국생활이 나에게 보여준 그들의 자유롭고 여유있는 일상 때문이었다.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학교 공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여유시간에는 가급적 많은 외국인과 교류하고 미국의 많은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들의 사고방식이나 실제적인 생활 등을 체험하고 그들을 많이 느껴보기를 추천한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일년 후가 되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